

### 지역아동센터에 팔빙수 선물하세요

동행, '쿨한 나눔' 캠페인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팔빙수 보시에 나선다. 동행이 진행하는 '핫한 여름, 쿨한 나눔' 모금 캠페인은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교실의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팔빙수 간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기부는 농협 301-0167-2578-81(예금주:아름다운동행) 또는 네이버 페이핀 온라인 모금으로 동참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될 예정이다. (02)737-9595 정혜숙 기자

### 여름불교학교 위한 지도자 연수 진행한다

동련·불례협 6월 각각 실시

여름불교학교를 앞두고 동련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가 지도자 연수를 실시한다.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성행)은 오는 6월 20일과 21일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59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진행한다. '멈춤 없는 정진 행복한 열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회는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배우고 지도자의 신심을 증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수는 동련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의 '신나는 캠프울동'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칠곡 도향암 주지 설봉스님의 '자연과 인간' 강의, 함양 대운사 주지 주석스님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강의, 법주사 참배, 스토리가 있는 여름불교학교 강의, 회향식 등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스토리가 있는 여름불교학교는 '만다라가 있는 여름불교학교' '손으로 만드는 부처님 세상' '소중한 나(불성·진로)를 찾는 여름불교학교 프로그램' 등 3개 강의 중 자신에게 필요한 강좌를 선택해 들을 수 있다. 동련은 연수회 참가자 40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승가교육 인종과정은 30명을 선착순 모집해 진행한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해만)는 오는 6월 27일과 28일 양주 육지장에서 '제55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진행한다. 이번 강습회는 아이스 브레이크(Ice Break) 및 싱어롱(Sing-Along), "행복한 지도자" 강의, 찬불가 율동 및 활용의 실제, 놀이와 만들기 명상 등 다양한 체험활동, 레크리에이션의 활용과 실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대상은 여름불교학교 지도자와 템플스테이 담당자, 포교사 등 150여 명이다. 신성민 기자

# “한국불교 논쟁, 불교 발전의 원동력”

## 불교평론 62호, 현대 한국불교 10대 논쟁 특집

불교는 논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부처님 입멸 후 십사년에서부터 교학은 치밀하게 다듬어졌고, 용수보살의 도발적인 의제 제기에서 중관사상이 등장했다. 한국불교 사에서도 성철 스님의 둔점논쟁은 정화운동에 몰입했던 수좌들을 깨우는 사자후가 되었다. 한국불교의 자양분이 되어온 논쟁을 10가지로 추려낸 특집이 눈길을 끈다. 바로 <불교평론> 62집의 특집, '현대 한국 불교 10대 논쟁' 이 그것이다.

**종조 논쟁 "인맥 범통관서 탈피해야"**  
박해당 박사(서울대 강사)는 조계종 종조 논쟁에서 청허휴정의 범법을 둘러싼 논쟁과 나옹법통·태고법통설 논쟁을 다룬다. 이어 일제강점기 이후 근현대 벌어진 보조법통설과 태고법통설의 논쟁을 다뤘다.

박 박사는 "1980년 중반 이후 조계종 법맥과 종조 연구는 역사학자들에 의해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나옹법통, 태고법통 모두 휴정 사후 후손들이 임의로 만든 계보일 뿐이며, 직접 인가하는 인맥 기반 법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드러났다"며 "현재 조계종은 도의종조설, 보조종조설, 태고종조설을 절충해 종조, 중천조, 중흥조로 각각 법맥을 밝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 박사는 "하지만 이러한 법계법맥은 사자상승이라는 인맥 중심의 법맥관이 자리하고 있다"며 △도의·지혜·보우의 직접 관계가 없어 법맥 모순 발생 △인맥으로 불매 도의 스님이 입제법맥이 아닌 점 △지혜 스님이 대해 스님으로 직접 인가를 받지 않아 간화선 정통성이 훼손 되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박 박사는 "인맥 위주의 법통설을 전통과 연결시킬 때 한국불교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선종 법통만으로 조계종 법통을 따지지 말고, 한국불교를 아우르는 새로운 법통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둔점 논쟁 이제는 중생 삶과 연결"**  
변희욱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연구원은 성철 스님이 제기하기 불려온 둔점 논쟁을 다뤘다. 변 연구원은 "둔점논쟁으로 인해 학문의 치외법권 영역인 깨달음과 님에 대한 연구가 본격 진행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1980년 둔점논쟁이 개막되고 1990년 둔오점수, 둔오돈수에 대한 파악이 진행됐다면 2012년부터는 이해로서의 깨달음인 해오에 대한 재해석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변 연구원은 "문제는 사람들의 현실이

### 불교평론 선정 '현대 한국불교 10대 논쟁'

조계종 종조	"인맥 기준 법통관 한계 지너, 종합 종파로 새 범통관 세워야"
선의 둔점	"둔점 논쟁은 깨달음 연구의 계기, 이전 중생 삶 연구에 집중"
대승불교 정체성	"대승 불설·비불설서 발전해 원용의 신대승운동 펼쳐야"
초기불교 사원론	"초기경전 연구로 대승불교도 발전, 대승불교 새 모습 기대"
사피	"사피 기능고려한 번역으로 논쟁으로 심리치료 관계 연구 발전"
기복불교	"기복불교 흥망성쇠 연구에 사회구조적 관점 도입해야"
경허의 행리	"경허 파계는 보석의 작은 결함, 현대적 해석의 지혜만이 남아"
민중불교	"민중불교 혁명성 두고 입장 갈려, 현대 불교 영향 연구 해야"
민족불교	"근대불교사의 새 지평, 기존 민족 개념 붕괴서 새 해석 가능"
불교와 자본주의	"불교대안사회 구축의 필수적 과정, 자본주의 병폐 고찰서 출발"

### 종조, 둔점, 사피, 민중불교 등 다뤄 자본주의와 접점 등 현대적 해석 눈길

라며 "둔오점수의 강점은 중생 현실을 수용하는 반면, 둔오돈수로는 해석되지 않는 세상사가 많다. 단순한 해석에 그치지 않고 중생들의 실제 삶과 연결해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초기·상좌부 논쟁으로 대승불교 발전"**  
이흥구 동국대 강교수는 "대승불교 정체성 논쟁"에서 "대승불교에서는 그 정체성을 두고 대승 불설과 비불설, 대승불교의 비불교적 요소, 상좌부의 니까야 친선여부 등의 논쟁이 이어졌다"며 "한국불교의 정

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화엄의 언어인식을 기저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원용적 시각 하에 실용적인 신대승운동으로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순일 동국대 교수도 '초기불교 사원론 논쟁'에서 "남방불교가 사원인지에 대한 논쟁은 학계와 불교계에 남방 테라와다 불교의 빨리 성장 연구와 위빠사나 수행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재검토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하며 "초기경전을 대승경전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만으로 대승불교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 대안 제시 위해 논쟁 지속해야"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는 "마음

챙김"으로 알려진 '사피'에 대한 논쟁을 다뤘다. 정 교수는 "불교학계에서 진행된 논쟁은 번역어 문제에 집중했으며 이는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 발생하게 됐다"며 "이러한 논쟁으로 인해 초기불교와 심리치료의 관계 연구 역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기복불교 논쟁'에서 "기복신앙은 원초적인 신앙이기도 하지만 작금의 사회구조가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며 "기복논쟁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조선 이후 한국사회 구조 변동이 기복불교의 흥망성쇠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연구돼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2012년 후반 논쟁으로 <불교평론> 폐간 위기까지 일었던 경허 행리 논쟁에 대해 신상한 고려대장경 전임연구원은 "파계는 '보석의 결함'에 불과하다. 반면교사인 경허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지혜만이 남아있다"고 정리했다.

박부영 불교신문 편집국장도 '민중불교 논쟁'에서 '혁명성'에 대한 시각차이에 주목하고 퇴조한 민중불교가 현재 한국불교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학술적 정점이 치열히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연구위원과 이찬훈 인제대 교수도 '민족불교 논쟁'과 '불교와 자본주의 논쟁'은 새로운 종교환경 구축과 대안사회 제시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활발한 논쟁이 지속되길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 “인간과 동물은 모두 존귀한 존재”

### 카라, 5월 28일 '종교와 동물' 토론회 개최

#### 4대 종교의 동물관 논의 “불살생, 불교 오계 중 하나 생명 행복권 찾아가는 길”

한국의 4대 종교가 모여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종교적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5월 28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이하 카라)는 서울 마포 카라 더블어움 센터에서 '종교, 동물을 말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4대 종교 대표 유정길 예코부터 이사, 장운재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조현철 서강대 신학대학원 교수, 최서연 원불교 외국인센터장을 비롯한 각 종교계 인사들이 함께했다.

이날 유정길 예코부터 이사는 '불교의 생명, 생태적 지혜와 청구'를 주제로 발제했다. 유 이사는 "부처님 깨달음의 실천은 결국 모든 생명이 함께 행복하기 위한 길

을 찾는 길이었다"며 "생명존중사상을 중시하신 부처님 가르침은 근대의 이기적 세계관을 극복하는 환경 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 이사는 "발우공양, 방생을 비롯해 잠든 중생을 깨워 함께 예불을 올리는 의미의 도량식 등 불교 의례와 건축은 친환경적 전통과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한 '불자생명청구'를 제시했다.

청구 내용은 스나는 못 생명들과 한 몸임을 깨닫고 이들을 나의 부모, 형제처럼 소중히 여기고 공경하겠다 스나는 이웃을 돕고 자연을 살리며, 인간과 다른 생물사이의 평등과 평화를 이루는 생명살림의 일꾼이 되겠다 △동물의 풍요에 집착하기보다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수행정진에 힘쓴다 △다소 불편한 삶을 즐기는 것이 자연을 살리는 방법임을 깨달아 삶의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인다 등 7가지 행동규칙이다.

이밖에 토론회자로 나선 윤문사 부설 은행

나무 어린이집 교사 진영 스님은 "실형에 의해 죽어가는 동물, 식용으로 길러지는 동물, 보호자에게 버려진 동물 등 열거하지 않아도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너무 잔혹하다"며 "불교는 살생을 오계로써 금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과 동물을 초월해 모두 존귀한 것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또한 원불교 발제자로 나선 최서연 교무는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무는 "과거 인간이 육식을 많이 하지 않았던 시대의 장점을 살려 오늘날 식생활에 반영해야 한다"며 "육식 위주 식습관은 가족을 너무나 혹독한 환경에서 살게 한다. 이렇게 죽어간 동물들의 영혼이 안타까울 뿐 아니라 점점 잔인해져가는 인간 사회와 식량문제, 환경파괴 등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한편 카라는 "이번 토론회는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기 위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논하는 최초의 자리"라며 "앞으로 토론회를 연차적으로 진행해 공동실천을 모색할 계획"을 밝혔다. 박이름 기자

## 울산 불교·청소년 함께 웃다

### 마하보디, '꽃보다 10대' 팝댄스 콘테스트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이사장 능행)은 5월 25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대학원 야외무대에서 제1회 울산 팝댄스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봉축을 맞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지하고자 소통 열림 치유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청소년, 기성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 행사다. 콘테스트는 노래와 댄스 부문으로 나누어 초중고교 10개 팀이 참가해 경연을 벌였다. 경연자들은 댄스, 밴드, 듀엣의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오색식 매듭팔찌 만들기 등 불교문화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은 상담을 전공하는 재학생과 지도자를 자재한양병원 CPE센터 학생들이 청소년·학부모 무료 상담소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열어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주최측은 울산광역시 교육감상,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장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3팀과 예선을 거쳐 본선으로 오른 7개팀에게 비전상과 장학금을 수여했다. 신성민 기자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은 5월 25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대학원 야외무대에서 제1회 울산 팝댄스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20년의 경력

**연등 자동 승강장치**

원주 보문사 대법당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안정성,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월성사 인등

**연 등**

노랑, 진분홍, 영가등, 금등, 바림등, 만월등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번